

여수 명물 '낭만포차' 이전 일단 스톱



여수시의회가 '낭만포차'의 이전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인근 부지로 이전하려던 여수시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수밤바다의 정취를 느끼려는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여수 종하동 낭만포차 거리. <광주일보 자료사진>

시의회 사업비 5억 전액 삭감
상인·주민 이전 반대 서명 등
공론화 없는 일방 추진 논란속
권오봉 시장 첫 공약 빨간불

부지로 이전하려고 했던 여수시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낭만포차 이전과 관련해 여수시가 지난 5월 SNS 소통기구 '만사형통' 앱을 통해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는 존치가 47%, 이전이 36%로 현 위치를 선호하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

여기에 낭만포차 인근 해양공원 일대 상인과 일부 주민 등 441명이 최근 이전을 반대하는 서명을 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민선 7기 권오봉 시장의 첫 공약사업이 시작부터 시의회에서 발목이 붙잡히면서 지역 일각에서는 여수시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행정 불신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여수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낭만포차 이전에 대한 공론화와 시민의

견 수렴이 부족했고 업무보고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여수시의회 의원은 "예결위 심의 당시 소통부족과 세부적인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 지역민을 위한 낭만포차 기부금(매출액의 3%) 낙수효과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며 "이와 함께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시민공청회와 여론수렴 과정 등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9월 중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정확한 시민의 여론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이전과 폐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당초 추정 예산 편성 후 9월 중 시민의견을 수렴해 결과에 따라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업무보고 당시 시의회에 충분히 설명 했었다"며 "이번 여수시의회 지적 사항을 잘 반영해 향후 전문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통해 이전을 위한 예산 반영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5월 2억 3000만원을 들여 처음 문을 연 낭만포차는 당시 17개로 출발해 현재 사회적 약자 3곳(차상위 수급자 가정·장애인가정·다문화가정), 청년층 7곳, 지역주민 단체(동문·중앙) 2곳, 일반 시민 6곳 등 총 18개 포차가 운영중이다.

'여수 밤바다'와 함께 전국적인 관광지로 부상한 낭만포차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주말이면 종포해양공원 일대가 주차장으로 변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아트 여수' 한달동안 예술속으로

국제아트페스티벌 14일 개막
국내외 작가 60명 작품 전시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이 '지금 여기 또다시'를 주제로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페스티벌에는 전 세계 7개국 60여명의 수준 높은 작가들이 출품한 회화, 조각, 사진·영상 등 현대미술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유혹한다.

작품은 영상미디어 30점, 회화·사진 110점, 설치미술 10점 등 현대미술작품 150여점으로 지난해 페스티벌에 비해 공간·미디어 작품 비중이 크게 늘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엑스포아트갤러리에서는 '여수미술의 역사'가 마련돼 김홍식, 류경채, 배동신, 손상기 등 작고한 여수 출신 국내 대표 예술인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전시홀(D1-D4)에도 영상미디어·설치·회화·조각 분야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이처럼 미국·독일·중국 등 국내외 작가들의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은 올해 8회째로 해를 거듭하며 여수를 대표하는 전시회로 성장했다. '통TONG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를 주제로 열린 지난해 페스티벌은 4만여 명의 관람객을 기록했다.

여수시와 추진위도 관람객 유치를 위해 일찌감치 국민배우 안성기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전국 단위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고재의 여수시 관광문화교육사업장장은 "여수 국제아트페스티벌은 세계적인 작품들을 한 눈에 관람할 수 있는 지역 대표 전시 페스티벌이다"며 "시민·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준 높은 작품을 유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농업인 부담 20%

여수시는 가뭄과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전체 보험료의 80%로 농림축산식품부가 50%, 여수시 20%, 전남도는 10%를 부담한다.

농업인의 경우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유기인증 친환경농가는 여수시와 전남도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자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벼, 배, 사과,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57개 품목과 농업용 시설물이다.

기업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지역 농협에서 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재해 예측과 대비가 어려운 만큼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관

여수시가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업무를 여수시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했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교통주차장, 화장동 주차장 등 유료 공영주차장 30곳을 지난 1일부터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 이관했다. 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차관리원 40명도 도시공단으로 고용승계된다.

또 돌산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업무도 도시공단이 맡는다. 휴양림관리원 10

명도 주차관리원과 마찬가지로 공단으로 고용승계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을 통한 전문성 있는 위탁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공기업으로 여수지역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등을 맡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효과...민원인 제출 서류 확 줄었네

행정 효율성 높아져

여수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여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행정정

보 공동이용을 활용한 민원처리 건수는 21만 2098건에 이른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인허가 등 담당 공무원이 타 행정기관 발급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정부서비스다.

담당자가 열람 가능한 서류에 한해 민원

인의 동의를 얻어 열람함으로써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열람 대상정보는 주민등록증·초본, 가족관계등록정보,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53개 보유기관의 160종이다.

시는 구비서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구비서류 감축을 추진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대내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이용률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